

■ 저항과 기억의 공간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Palenque de San Basilio)

차 경 미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는 콜롬비아 카리브 해 연안의 중심도시 카르타헤나(Cartagena de Indias)로부터 7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한 팔렌케다. 팔렌케는 도주한 흑인노예들이 밀림이나 늪지대 또는 깊은 계곡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를 뜻한다. 마을에 들어서면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자유를 외치며 절규하는 벵코스 비오호(Benkos Biojo)의 동상과 마주하게 된다. 그 뒤로 마을의 유일한 백인 바실리오 성인이 작은 성당 안에서 벵코스를 던지시 바라보고 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1603년 벵코스 비오호 혹은 도밍고 비오호(Domingo Biojo)로 불리는 시마론(Cimarron)에 의해 건설됐다. 시마론은 안티야스 제도의 말로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화살”이란 뜻으로 도주한 흑인노예를 말한다.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흑인 팔렌케는 소멸되거나 인접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경험했으나,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자기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시마론 후손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스페인은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토지집중의 가속화와 함께 대농장 아시엔다가 형성됐다. 아시엔다에서는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탕수수, 담배, 커피, 면화 등 수출용 상품작물이 재배됐다. 아시엔다가 발전함에 따라 도주한 노예도 증가했다. 개인적으로 도주한 노

에도 있었고, 조직적으로 도주한 노예들은 식민노예제에 저항하여 플랜테이션농장에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17세기 브라질의 킬롬보 도스 팔마레스(Quilombo dos Palmares), 페루 리마부근에 형성된 우아치파(Huachipa), 카라바이요(Carabayllo)와 몬테 삼브라노(Monte Zambrano) 팔렝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팔렝케는 독자적인 체제와 문화를 유지하며 식민노예제 폐지를 중심으로 시마론의 단합된 조직력을 보여 준 중요한 공간이었다. 당시 콜롬비아에는 35개의 팔렝케가 존재했다. 도주에 실패한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 귀와 손이 잘렸다. 귀가 없고 손이 잘린 노예는 쓰다 버리는 물건에 불과했다.

벵코스의 지휘아래 전개된 시마론의 저항은 누에바그라나다(Nueva Granada) 식민체제에 위협이 됐다. 1605년 7월 18일 카르타헤나 정부는 시마론과 협상을 시도했고, 1612년 상호공존 평화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시마론의 수는 줄지 않았다. 1621년 3월 식민정부의 추격 끝에 시마론의 왕 벵코스는 카르타헤나 거리에서 체포되어 쇠꼬챙이로 목이 찢리고 성기가 잘린 채 두 눈을 감았다. 벵코스의 죽음이 알려지자 시마론의 저항은 강도 높게 전개됐다. 노예사냥꾼들은 시마론을 추격하여 팔렝케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추격대에 생포되어 끌려 온 시마론은 긴 창에 머리가 매달렸으며 아킬레스건이 잘려 나갔고 불로 벌겍게 달군 쇠꼬챙이에 온몸이 찢리는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가혹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시마론과 팔렝케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1847년 노예제 전면폐지법이 공포됐고, 노예제 폐지 이후 자유인으로 돌아온 흑인들은 기억의 땅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대서양 연안의 아시엔다에서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군단을 형성했다. 시마론 후손들은 인근지역으로 이주했고 팔렝케는 급격히 해체되거나 도시화됐다. 그러나 대서양 연안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한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의 단절을 통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동체는 인종적 혼혈의 경험이 적었고, 사회조직 문화 속에서 아프리카의 전통이 생명을 유지하고 리듬을 가지며 발전해 왔다.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가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다. 194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추진한 토지개혁법을 통해 공유지와 미개간 국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진행됐다. 이는 팔렝케의 토지를 지역의 일부세력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은 곧 빈곤에 처



했다. 인근도시의 산업성장과 공공 사업으로 인해 도시노동력은 증가했고 이를 계기로 팔렝케 주민의 공동체 이탈이 시작됐다. 외부와의 접촉은 팔렝케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수반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파괴돼 갔다.

팔렝케 여성들은 카르타헤나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거리나 해변에

서 과일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여성의 수입은 가정을 지탱하는 원천이며 남성들은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했다. 또한 마스크를 통해 소개된 외부의 소비문화는 주민들의 경제적 열등감을 심어 주었고, 외부세계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젊은 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팔렝케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전통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물질적인 삶의 측면에서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으나, 주민의 정서 혹은 신앙과 같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전통 사상은 아직도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 사회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룬다. 형식적인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자기네 전통 관습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구전을 통해 축적된 아프리카 조상의 경험과 지식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들에게 지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삶과 유리된 게 아니었다.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은 독창적인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반투(Bantú) 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언어는 포르투갈 어와 스페인 어 그리고 아프리카 어가 새로운 문법체계를 통해 형성된 크레올(Creole) 어였다. 서로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노예들은 공통의 언어가 절실했다. 노예들은 정복자들의 언어에 키콩고, 앙골라, 루앙고의 어휘를 접목하여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팔렝케 언어는 발전했다. 교육이나 생계를 위해 대도시로 이주한 일부 팔렝케 주민들은 자기네 언어가 사투리라고 여겼다. 팔렝케 언어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도시로 이주한 팔렝케 주민은 언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팔렝케 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1972년 팔랭케 출신의 권투선수 키드 파멜레(Antonio Cervantes Kid Pamele)의 등장은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던 팔랭케 주민이 어엿한 콜롬비아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파멜레는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WBA 세계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돌아온 벵코스’였다. 세상은 팔랭케 데 산바실리오의 문을 두드렸고 이 공동체의 역사와 독창적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기네 언어가 사투리가 아닌 독창적인 언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공동체의 역사가 재평가됐고 팔랭케의 문화는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인류문화유산의 하나로 인정됐다. 파스트라나(Andrés Pastrana) 전 대통령(1998~2002년 재임)은 팔랭케에 체육관을 건립했고, 챔피언과의 약속을 지켜 공동체에 전기와 수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권투는 팔랭케 주민들이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팔랭케 데 산바실리오는 언어뿐만 아니라 연령대 그룹인 마-구아그로(Ma-Kuagro)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마-구아그로는 연령체계에 따른 사회조직체다. 연장자는 연령에 기초하여 회원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사회행동을 통제해 왔다. 팔랭케 데 산바실리오만이 이러한 연령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주민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소속감 향상에 중요한 구실을 해 온 것도 마-구아그로다. 마-구아그로는 일종의 호혜적 맥락의 제도로서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노동 교환을 축으로 하는 품앗이,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장례식 등 경조사에 역점을 두는 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 문제를 집단 의견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모임, 제사를 통한 조상과 자손의 관계, 초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이 모두 마-구아그로의 목적과 기능이다. 또한 마-구아그로는 혈연관계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기능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마-구아그로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만

남의 기회를 가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결혼은 삶의 필수 조건이었다. 사회의 구성원인 죽은 사람, 현존하는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이 결혼식이기도 했다.

팔랭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의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의식은 다분





히 전통적인 림발루(Lumbalú)와 같은 장례문화와 종교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의학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림발루는 키콩고 언어로 “슬픔” 또는 “향수”를 뜻한다. 림발루는 타악기 탐보레스(tambores)와 바타타(batata)로 연주되는 시적인 노래 형태

태의 장례음악이다.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에게 초자연적 세계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장례식 때 고인은 림발루로 표현되는 슬픔과 애도를 통해 죽음과 동떨어진 또 다른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통종교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전통종교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팔렝케에서 장례식 때는 고인과 남은 사람들이 함께 나눈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노래와 춤이 동반된다. 남은 사람들은 림발루를 통해 절제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고인의 출발을 축복한다. 장례식은 마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축제와도 같다.

팔렝케의 전통음악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혼합돼 있다. 그들의 음악은 아프리카 전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왔다. 1920년대 인근 제당공장으로 이주한 일부 팔렝케 노동자들은 쿠바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 냈다. 부예렝게(Bullerengue)와 림발루는 쿠바의 전통리듬 손(Son)과 결합하여 팔렝케 손(Palenque Son)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팔렝케의 전통은 그들이 자기표현을 위해 새로 만든 장르 속에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이 재활용된 팔렝케 음악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였다.

팔렝케 데 산바실리오의 전통의학은 아프리카와 콜롬비아 카리브 해 지역 원주민의 전통이 접목된 전문화된 지식이다. 전통의학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승된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종교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의사는 몸을 씻고 누워 있는 환자의 몸에 증세에 따라 마추카(Machuca), 바사미나(Basamina) 그리고 콜리센시아(Colisencia)와 같은 약초를 뿌린다. 의사는 여러 가지 약초, 나뭇잎, 뿌리,



열매, 풀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효과와 그 사용법에 관한 전통지식을 배워 활용하고 있다.

영혼의 세계와 현실세계의 거리가 멀지 않고 그 경계도 모호하여 팔랭케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혼의 세계가 공존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상숭배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선한다.

17세기 초 형성된 이후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생존한 팔랭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거주자는 어렵게 보아 3천 5백여 명.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만여 명의 달하던 주민은 악화된 국내 정치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가 공동체를 이탈했다. 특히 1980년대 격화된 콜롬비아의 내전은 팔랭케 주민의 공동체 이탈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팔랭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주민들의 경제적 열등감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인근도시로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팔랭케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